

# 개점휴업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기지개'

### 도, 경기도 농업법인에 사용 허가... 18일부터 가동 제주농수축산물 유통 거점 역할 못하며 반쪽 재개

개점휴업상태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새 운영자를 찾으면서 이달 기지개를 켜다. 하지만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공급 거점기지 기능 회복은 불확실해 '반쪽' 재개에 그칠 전망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농업회사법인을 신규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3차때 기존 예정가격의 10%를 인하했음에도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4차때는 18% 인하(예정가격 2억7098만1160원)했

지만 끝내 유찰됐다. 이후 도는 희망업체와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일단은 일반 물류 유통이 이뤄지지만 추후 제주산 농수축산물 유통 기능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48억3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평택항 포승물류단지내 1만2193㎡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건물 3104.9㎡)의 규모로 건립됐다. 물류센터에는 냉동실과 냉장실, 사무실, 상온집하장 등

이 설치됐다.

물류센터 건립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소비지 직배송 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됐지만,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표류됐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도는 매각도 검토했지만 국비가 투입된 중요재산 사후관리가 10년 미경과로 보조금 일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어 10년 경과 시점에서 매각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4일 서귀포시 면형의 집에서 제주 온주감귤 시원지 보존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태윤기자

## "온주감귤 시원지, 역사·문화공간으로"

### 기념비 건립... 어제 제막식 면형의 집에 조형물로 보존

올해 4월, 108년 만에 결국 고사한 제주 최초의 온주감귤 나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비가 건립됐다.

서귀포시 서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4일 면형의집 일원에서 제주 온주감귤 시원지 보존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념비는 프랑스 출신 에밀 조셉 타케 신부(1873-1952, 한국명 엄택기)가 1911년 일본에서 선물받아 제주에 심었던 첫 온주감귤 나무 14그루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무가 올해 4월 고사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온주감귤 나무 기념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했다.

제막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해 관계자 등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최초 온주감귤 나무는 아쉽게 고사했지만 이번 기념비를 통해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윤경 시장은 축사에서 "제주 최초의 온주감귤의 명맥이 서흥동에서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경수 사장은 "온주 감귤나무 시원지가 도내 명소를 자리잡고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반갑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고사한 온주감귤 나무는 보존가급 처리돼 면형의 집 성당 현관에 조형전시물로 설치·보존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인공지능과 미래금융 세계 제주대·금감원 등 세미나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는 금융감독원,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아라컨벤션홀에서 'A.I. (인공지능)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주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과 동행해 청년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AI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캠퍼스 특강으로 마련됐다.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IBM, KB국민은행 등 국내외 우수 IT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최신 AI 금융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전에는 제주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 전략(제주도),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IBM 코리아), 블록체인 기반 서울의료원 의료 서비스 구축 실증 사례(유투바이오), 블록체인 기반 제주 폐맛데리 유통이력관리와 기타사례(LG CNS), 블록체인과 금융혁명(디센터), 블록체인 규제와 변화(한국블록체인법학회)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AI와 금융의 미래(IBM), AI 시대의 인재상(KB국민은행), 아마존의 AI 활용사례, 데이터 활용과 AI의 미래(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발표가 잇따를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AI 기술에 대한 여러 실증 사례를 고찰하고 현재 진행중인 제반 솔루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무밭 김매는 농민들 4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무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박차

### 도농업기술원, 10억 투입 디지털농업 연구기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디지털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감귤·아열대과수에 적합한 스마트팜 연구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12월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제주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농업 육성을 위한 감귤·아열대과

수류에 적합한 제주형 디지털농업 연구기반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농업적 이용이 농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도내에서도 제주형 디지털농업 시스템 개발·보급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2월 완공 목표로 농업기술원내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해 하우스 6동에 면적 2145㎡로 ICT 융복합 디지털농업 연구기반 시설을 신축 중이다.

도농기술원은 제주형 디지털농업 연

구기반이 구축되면 내년 감귤·아열대과수류 6종을 정식해 유망 과종 선발, 빅데이터 구축, 고품질 생산모델 개발 등 본격적으로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스마트 시스템으로는 하우스 환경데이터 수집을 위한 외부 기상대를 설치해 온도, 습도, 풍속, 강우 조사와 하우스 내부에는 온도, 습도, EC, CO<sub>2</sub> 등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설 내 CCTV를 설치해 실시간 화상 정보를 수집하고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폐, 관수 등 원격제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른기자

## 에월도서관, 16일 북-플리마켓 '책 나누장'

제주시 에월도서관은 북-플리마켓 '책 나누장' 행사에 함께할 쉐어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책 나누장'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개인 북셀러 외에도 에월지역내의 색깔있는 동네책방과 북카페, 코너, 기타 소품이나 홈페이지 푸드 코너 등을 운영

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책을 기증하고 가져갈 수 있는 책 나눔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

샐러로 함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에월도서관 전화(064-728-1507) 또는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종합경기장 이용자 75% "시설 개선을"

### 이승아 의원 설문조사 결과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5.1%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종합경기장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변경도 있지만 생활체육의 확대에 따라 시설 이용의 최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30년 이상 노후된 체육시설을 현대에 맞는 시설개선을 진행하는데 있어 예산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필

요가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응답자의 75.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6%, '계부시설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5%였다. 시설개선 순위는 주경기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애향운동장 순이었다.

향후 종합경기장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 체육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주차 빌딩, 실내 놀이터, 문화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스포츠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6.5%로 나타났다.

오른기자

## 제 2형 당뇨병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써 DWP16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 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 임상시험 목적

본 임상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으로써 DWP16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 모집대상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동의서 작성일 기준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첫 방문 시 측정된 당화혈색소 수치가 7%~10%이며, 첫 방문일 기준 8주 이내에 당뇨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지원자

### 임상시험대상자 제공사항

- ▶ 참여기간 동안 임상시험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의료진의 진찰 및 검사비
- ▶ 임상시험용의약품
- ▶ 소정의 교통비

### 예측 가능한 부작용

시험약DWP16001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른 변, 설사, 소화 불량 등의 위장관계 증상과 배뇨곤란, 뇨의 저류 등의 비뇨기계 증상등이 있습니다.  
※ 상기 부작용 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방법

- ▶ 총 5회 방문 실시
  - 선별검사 1회 포함, 기존에 약제 복용하던 대상자의 경우 총 6회 방문
  - 임상시험용의약품 14주 복용, 전체 시험 참여기간은 최대 16주 (약제 복용하던 대상자의 경우 24주)
  - 병원방문 시, 활력징후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시행
  - ▶ 서면동의서 취득 후 선별검사를 거쳐 적합한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후 1:1:1 무작위배정을 진행  
[시험약1: DWP16001 0.1mg 또는 시험약2: DWP16001 0.3mg 또는 시험약3: DWP16001 0.5mg 또는 대조약: 위약(가짜약)]

### 참여기간

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연건동 28-21) 내분비내과 박경수 교수 외 국내 39개 종합병원(제주대학교병원 포함)

## 문의처 1800-1252

# 2019 풀부리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

개회식 및 승마인의밤 행사안내

2019년 11월 9일 11:30  
승마경기장 내 특별무대

※참가자 정품 추천 및 향토음식 무료제공

**일 시: 2019.11.9(토)~10(일)**

**장 소: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본 대회는 축산발전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최/주관: JJEF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Jeju 한국마사회